日 유출 불감, 고려 1100주년 맞아 '환지본처'

국립중앙박물관회 YFM, 1월 9일 국박에 기증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제강점기 이후 유출됐던 고려시대 불감(佛龕)이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왔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1월 9일 (사)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 친구들(Young Friends of the Museum, 이하 YFM)이 기증한 '고려 불감'을 공개했다.

이 불감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구 병원장이자 고미술 수장가였던 이치다 지로(市田次郞)가 소장한 것으로 광복 이후 그의 가족들이 일본으로 유출했으며, 30년 전 일본 동경 고미술상이 구입했다. 한국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유리건판 사진으로만 전해져 왔다. 이후 YFB가 일본 동경 고미술상에서 확인한 후 모금을 통해 구입했으며,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고려 불감'은 휴대용 불감으로 사찰 이외의 장소에서 예불을 봉행할 수 있도록 한 축소된 불전(佛殿)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집중적으로 제작됐으나 현재 전해지는 불감은 15여 점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에 기증된 불감은 전각형이 아닌 상자형으로 그 사례가 극히 드물다.

14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고려 불감'은 높이 13.5cm의 '동제 불감'과 높이 8cm, 너비 5.2cm의 '은제 도금 관음보살상'으로 구성됐다.

'고려 불감'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불감 내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타출 기법으로 제작한 부조 장식이다. 불감 내부에는 석가여래설법도가 부조 형태가 조성돼 있는데 청중으로는 좌우 협시보살과 10대 제자, 팔부중(八部衆)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양희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고려시대 불감 중 유일하게 팔부중이 등장하는 여래설법도"라면서 "조선 후기에 유행한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의 시원으로 볼 수 있어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적인 면에서는 익산 심곡사 7층석탑 출토 불감과 유사하다"면서



(사)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 친구들(YFM)이 1월 9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14세기 제작 추정 고려 불감. 이치다 지로가 광복 후 일본으로 유출한 것을 YFM가 구입 · 환수했다.

고려 불감, 14세기 후반 제작
팔부중 등장 설법도 '유일'
조선 유행한 영산회상도 始原
상자형은 사례 적어 가치 높아

이치다 지로, 광복 후 日 유출
고미술상 설득 끝에 구입 · 기증
올해末 '대고려展'서 일반 공개



◀고려 불감에 부속된 '은제 도금 관음보살상'

"고려시대부터 등장하는 금속제 불감의 전개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고려 말 불교미술 양상, 금속 공예 · 건축 양식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불감과 함께 전래된 관음보살상은 이 시기에 제작된 원 · 명대 불상 영향을 받은 소형 금동상과 양식적으로 상통하는 요소가 많다. 불감 내부의 고정 장치와 보살상의 크기를 보았을 때, 원래는 2구의 불상이 불감 안에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에 기증된 '고려 불감'을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4일 열리는 '대고려' 특별전시회에 전시하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도 진행할 계획이다.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불감은 그 시대의 회화, 불상, 건축이 집약된 매우 희귀한 불교 문화재"라면서 "환수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좋은 전시회를 통해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고려 불감을 포함해 10건의 유물을 기증했으며, 이번에 불감을 기증한 YFM은 젊은 경영인들이 2008년 결성한 문화 후원 친목 모임이다.

조선왕실 원당 청룡사의 모든 것 담다

國博, '안성 청룡사' 종합조사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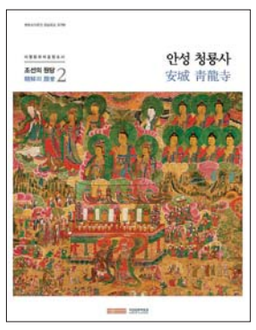
조선시대 왕실의 원당(願堂)이었던 안성 청룡사의 문화재 등을 연구 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2016~17년 실시한 사찰문화재조사사업의 결과가 담긴 〈조선의 원당2- 안성 청룡사〉를 발간했다"고 1월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조선의 원당2- 안성 청룡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불교미술 연구 조사보고 제7집으로, '조선의 원당'을 연구 대상으로 한 2번째 보고서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청룡사는 조선 인조의 아들 인평대군(麟坪大君, 1622~1658)의 원당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찰은 고려 말에는 왕의 초상을 봉안했으며, 조선 전기에는 역대 왕실의 내원당(內願堂)으로 기능했다.

원당은 죽은 사람의 그림, 상(像), 위패를 모시고 명복을 빌며 기도하는 자의 다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법당을 의미했



으나, 조선 시대에는 왕실의 안녕과 돌아가신 왕과 왕비의 명복을 기원하는 사찰으로 자리잡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청룡사가 소장한 불교조각, 불교회화, 동종(銅鍾), 부도 등의 문화재를 실측하고 촬영했으며, 불화의 안료 분석, 복장(腹藏) 발원문 직물의 현미경 촬영 등의 과학적 조사를 함께 수행했다. 이외에도 청룡사의 역사를 알려주는 주요 기록을 모아 번역했다.

2년에 걸친 조사 결과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분야별 전공자 7명이 작성한 7편의 논고 안에 자세히 정리됐다.

논고에는 '소조석가모니삼존상(보물 제1789호)', '감로도(보물 제1302호)', '동종(보물 제1104호)', '소조석가모니불상' 안에서 발견된 발원문 등을 중요하게 다뤘다. 또한, 이외에도 사찰의 문화재를 전수 조사하고 상세한 사진과 내용을 풍부히 담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규모가 크지 않은 사찰이지만 이 같은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 다량의 문화유산을 갖춘 것은 왕실의 원당이라는 지위가 중요한 요인이었다"면서 "현전하는 문화재와 문서 기록은 사찰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안성과 직산 일대의 백성들이 정성어린 시주 공양으로 유지 · 존속됐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간한 〈조선의 원당2- 안성 청룡사〉는 공공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동아시아 불교는 어떻게 정착됐나

충북대 철학과, 1월 8일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철학과 불교' 주제

동아시아 전통 철학과 불교의 관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마련됐다.

충북대(총장 윤여표) 철학과는 1월 8일 인문대학 325호에서 '동아시아 전통 철학과 불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018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충북대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단과 정세근 철학과 교수가 주축이 돼 진행됐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 일본 · 미국 4개국 대학의 학자들이 참여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각국 불교와 전통철학의 접합과 정착화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 학자로는 정세근 교수가 '한국불교의 특징-운주사의 경우', 이병욱 중앙승가대 교수가 '한국의 통불교'에 관해 발표했다.

중국 측 학자로는 두바오뢰이 상하이 교통대 교수가 '중국의 대승불교사상과 유가도가철학'에 관한 주제로 발표



충북대 철학과는 1월 8일 인문대학 325호에서 '동아시아 전통철학과 불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를 진행했으며, 정상봉 건국대 교수가 통역을 담당했다.

일본 측 학자로는 사토고에츠 츠바쿠대 교수가 '일본에서의 불교와 신도의 습합'에 대해 발표했고, 같은 대학의 엄석인 교수가 통역을 맡았다. 미국 측 학자로는 박진영 아메리칸대 교수가 '서구에서의 불교'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정세근 교수는 "이번 학회를 계기로 한 · 중 · 미 · 일 4개국의 불교가 자국화되어가는 과정과 그 특색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금강대 불교문화硏 산스크리트어 강좌

1월 29일~ 2월 9일까지

불교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 연구센터에서는 제10회 불교고전어 전문강좌인 '스바가땀! 산스크리트'를 개설한다고 1월 4일 밝혔다.

금강대 본관 종합강의동에서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불교전공 학부생 및 대학원생, 기타 인도문화와 불교, 산스크리트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문 강좌에서는 산스크리트 초보자를 위한 문법반과, 초기대승불교 경전을 실제로 독해하는 강독반이 운영되며, 이영진(산스크리트 사본전공)과 하영수(법화경 전공) 강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1월 23일까지며, 기숙사 문제로 선착순 접수 · 마감된다. 수강료는 강좌당 10만원, 두 강좌동시 수강시 15만원.

문의 (041) 731-3628

신성민 기자

선학회 · 연세대 철학硏 벽암록 시민 무료 강좌

13일부터 매주 土 5주간

신규탁 연세대 교수 강의

연세대 철학연구소와 한국선학회는 공동으로 1월 13일부터 5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3~5시 '〈벽암록〉 맛보기 시민 무료 강좌'를 진행한다. 장소는 연세대 문과대학 외솔관 526호 멀티미디어강의실이며, 강사는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맡는다.

강의 교재는 장경각에서 간행한 선림고경총서 시리즈 〈벽암록〉(상권)이다. 〈벽암록〉은 중국 당나라 이후 불교 선승들이 전개한 대표적인 선문답을 가려 뽑아 설명한 책으로 설두중현 선사가 펴낸 〈송고백칙〉에 원오극근 선사가 내린 해석을 첨가한 것이다.

선과 문학이 어우러진 명저로 중국 지성계를 흔들었다. 한국에는 고려 말에 전래됐고, 조선 초에 청동 활자로 이 책을 인쇄 · 보급한 바도 있다.

한편, 신 교수는 방학을 이용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강좌를 개설해 왔으며, 최근에는 '화엄 현담 의리분제', '고존숙어록'(초록) 등을 강의했다. 문의 (010)5510-2537(여여행)

신성민 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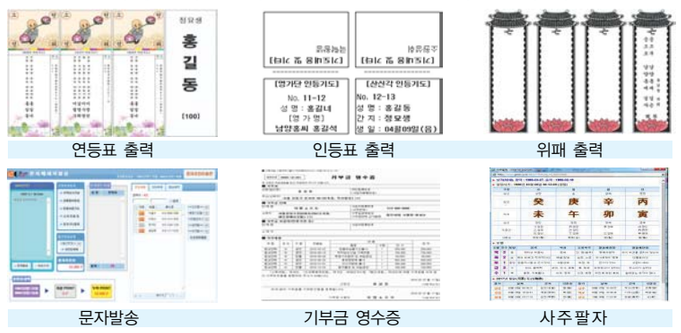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 - 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